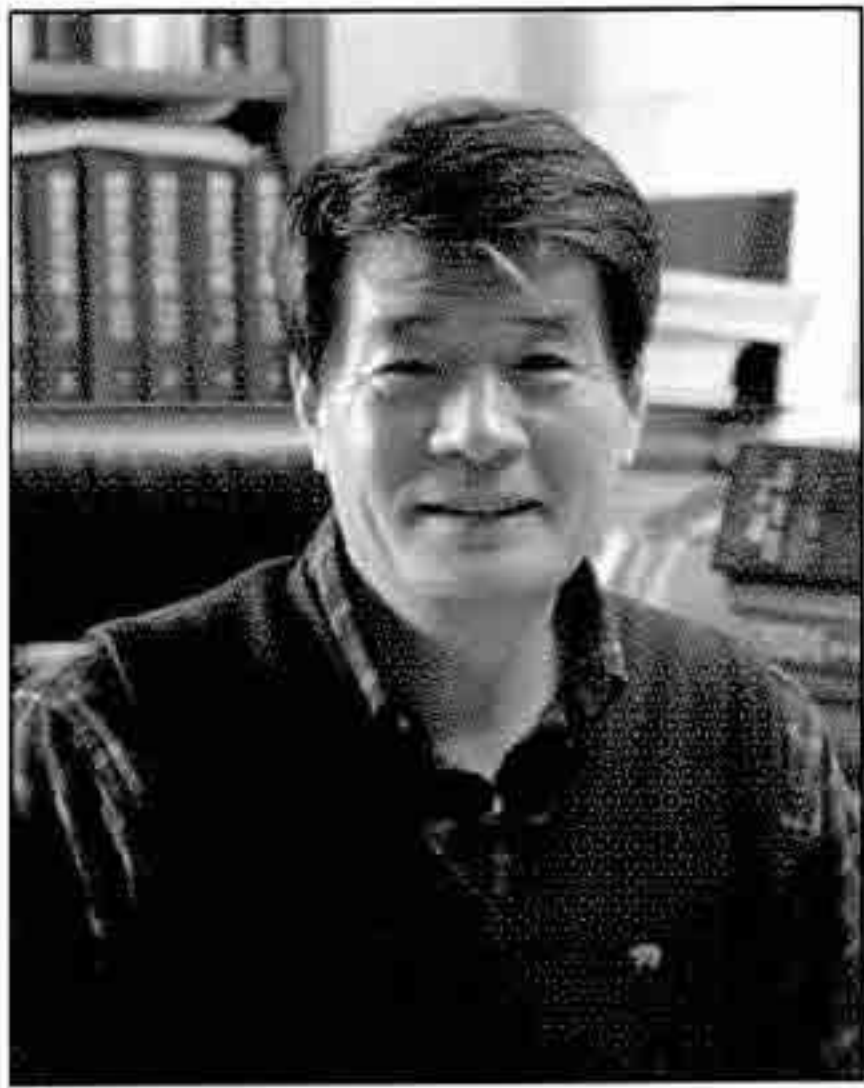


## “지금 세상에 감히 천렵이라니?”



**김주영** 소설가,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이사장, 환경부 환경홍보대사  
☎ 02-2277-98520

〈필자약력〉

- 1939년 경북 청송 출생, 1971년 「휴먼기」로 등단
- 『객주』를 비롯해, 『천둥소리』, 『아라리난장』, 『홍어』 등의 작품을 통해 사람살이의 애환을 기록
- 이산문학상(1996), 대산문학상(1998), 김동리 문학상(2002) 가천환경문학상(2007) 수상
- 최근 5년 만에 현대문학에 「붉은 단추」를 연재

나를 키워준 고향을 잊고 대치를 떠돌며 살다가 어느 여름날, 휴가를 받아 그 곳을 찾아갔다. 그 시절을 함께 했던 친구들은 나처럼 고향을 떠나 살고 있어 고향엔 불과 대 여섯을 헤아리는 선후배들이 가뭄에 콩 나듯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들은 한결같이 궁색하고 가슴에는 그 궁핍한 생활이 남긴 상처들이 선명하게 있었다. 그래서 모두들 나이보다 더 늙어 있었고, 허리가 꼬부라진 친구들도 있었다. 그래도 일찍 고향을 떠난 후배가 오랜만에 고향에 다시 나타났다면 함께 모여 소주 파티를 열어 주었다.

고향 역시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것처럼 소박하고 정이 꿀처럼 흐르는 고향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발언은 과격했고, 마을의 집들과 간판 같은 것들이 도회의 그것과 같이 매우 과장되어 있었다. 협소한 식당의 식단에 특자와 같은 문자들이 난무하고 원조와 같은 단어들이 무차별로 쓰이고 있었다. 지난날의 소박함과 부끄러움 같은 것들은 어디로 숨어 버렸는지 찾아보

기 힘들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들은 세상의 인심이 너무나 빨리 그리고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것을 탓하며 소줏잔을 입안에 털어 넣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천렵을 가자는 제의를 했다. “지금 세상에 감히 천렵이라니?” 나는 깜짝 놀라 그렇게 반문하였다. 어린 시절을 산골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천렵이란 말에 가슴 두근거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시절의 무더운 여름에는 낮과 밤을 막론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쏟아져 나가 살다시피 하였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있다면 강가로 나서야만 만날 수 있을 정도였다.

떡감기를 하다가 지치면 인적이 한적한 상류의 웅덩이를 찾아가 낚시를 하였다. 여울목에서는 조무래기들이 사발무지를 놓아 모래무지를 잡고, 밤에는 햇불을 만들어 붓도랑으로 나가 수초를 뒤지며 밤 고기를 잡았다. 여럿이 모이면 자갈밭에 가마솥을 걸고 천렵을 하였다.

긴 새끼줄에다 강가에서 핀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새끼줄 사이사이에 끼운 다음 물 속에 넣고 수면으로 뜨지 않게 하류로 밟고 내려가면 물 속의 고기들이 놀라서 하류에서 대기하고 있는 반두 속으로 뒤죽박죽 뛰어든다.

새끼줄이 낀 버드나무의 뒤쪽은 흰색을 띄고 있어 물 속에서도 햇볕에 곧잘 반사된다. 앞사귀에 반사되는 빛에 놀란 고기들이 하류로 쫓기다가 순식간에 반두 속의 그물로 뛰어드는 것이었다.

대량으로 잡은 고기를 끓여 먹는 것보다 그 과정이 매우 재미있고 협동심을 발휘하지 못하면 곧잘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위를 말끔하게 잊을 수 있었던 그 천렵을 제안한 것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농약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땅과 물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할 것이고 물에는 곤충이 자취를 감추어서 가을이 되어도 여치가 울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감히 천렵이라니?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고향에는 60여년 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천렵을 즐길 수 있는 냇가가 있었다.

늙은 우리들은 정말 50년 만에 어렸던 그 시절처럼 아랫도리까지 훌렁 벗고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그 날 건져 올린 반두 속에는 역시 그때 그 시절에 보았던 고기들이 햇볕에 반짝이며 튀고 있었다.

피라미, 갈겨니, 붕어, 버들치, 빠가사리, 미꾸라지, 모래무지, 납자루와 같은 민물고기들을 만나게 되면서 지난날의 기쁨들이 뇌리에 새겨졌다. 정녕 사람이 살 만한 땅이 아직 고향에 남아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은 정도였다. 것처럼 생명을 잃지 않은 것의 발견에 나는 흥분했고, 흐뭇했다.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이거나 과거로부터 출발하여 완성된 것들이다. 모든 역사적 유적들과 진리라고 일컫는 이론들조차도 모두 과거로부터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는 그것을 향유한다. 그런데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만은 미래로부터 빌려 쓰고

있다는 말이 있다.

매우 설득력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미래에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갈 우리들의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면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인가.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들이 향유하고 있는 환경을 당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혹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만이 최고의 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편리함만을 쫓아가는 세상의 풍조 때문일까. 잠깐 동안의 불편함도 참아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인지 모른다.

혹은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인간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만들어져야 한다는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보면 불편한 세상에서는 전혀 살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도도하고 오만하다.

그 도도함과 오만을 털어 내야만 우리의 올곧은 삶의 모습도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